

본문: 에스더 7:1~10

제목: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1. 대적과 원수

아하수어로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날 아침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개의 공적을 치하하고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 두 번째 잔치 또한 왕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한 듯 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그것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조차도 당황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더의 첨언은 과거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תָּמַשׁ)과 도륙함(לָרָק)과 진멸함(תָּמַח)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어서 자신들이 노비(אֲבָדִים)로 팔렸다면 자신은 잠잠했겠지만 왕에게 손해가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진멸(אֲבָדִים)을 당하니 더 큰 손해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과 자기 민족의 목숨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한 충성심에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왕후를 그의 민족과 함께 살해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자가 누구인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에스더의 대답에는 하만이 누구의 대적이고 원수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아하수어로는 하만을 자신의 대적과 원수로 인식합니다.

왕은 노하며 잔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후원으로 갔고, 그 사이 하만은 이전 유대인인 모르드개가 목숨을 걸고 엎드리지 않은 것과는 상반되게 유대인인 에스더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왕은 하만이 에스더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왕의 모시는 내시 하르보나는 이 때 하만이 충신인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50규빗의 나무를 준비했다고 고발하며,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결국 하만은 “나무(עֵץ)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 “나무에 달렸다”는 표현은 본문 9~10절 뿐만 아니라, 이후 죽은 하만에 대한 묘사(8:7), 하만의 아들들의 죽음을 설명 할 때도(9:13, 25)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21:23의 말씀을 염두한 것으로 이 모든 일이 에스더의 결단과 지략, 왕의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만을 저주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대적과 원수로 삼은 것은 사실 모르드개나 에스더, 아하수어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2. 섭리의 고백, 겸손의 고백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그 나라의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양육, 은퇴 이후의 삶 등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계획, 이를 세우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힘과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해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등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신앙의 모든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봉사,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등 모든 일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더가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기회를 엿보고, 지혜를 짜내어 하만을 고발했지만, 결국 대적을 물리치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만을 나무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 수고와 노력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것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신앙생활과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편 127:1) 그러니 우리는 겸손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겸손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원하는 결과를 맺어도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맺지 않아도 잠시 잠깐은 낙심 할 지언정 결국은 이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감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1~14

제목: 하나님을 향하는 삶

- 설교 한문장 요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1. 하나님의 재창조

요한복음은 “태초에”(ἀρχή)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창세기의 처음 내용인 창조를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와 더불어 “말씀”(λόγος)이라는 단어가 어우러져 있는데, 말라기 이후로 시작된 중간기를 지나는 유대인들이 주목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말씀”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창조, 혹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πρὸς ~을 향하다)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1~3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이들로 창세기의 창조 이후 하나님의 재창조, 즉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번에는 말씀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명을 품은 “빛”으로 소개합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추이면 어둠은 이기지(καταλαμβάνω, 깨닫지) 못하고 물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세상이 와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었지만, 세상은 자신들을 창조한 빛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알고 영접하는 자들, 즉 그 빛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γίνομαι,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전의 창조와 다른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은 이 빛, 말씀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2. 재창조의 증인

그리고 이 이야기 한 가운데 6~8절은 이 빛에 대한 증언(μαρτυρέ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고, 그래서 12절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ἀποστέλλω) 받은 사람”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묘사와 동일합니다. 이들은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계보를 세례 요한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ἀπόστολος) 보내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증인(μάρτυς)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행 1:8)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이나 사도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의 계보를 이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을 통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빛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전 15:17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어둠 아래 놓여있어서 동일한 어둠 아래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어둠을 이기신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나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부르시어 재창조하시고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6:9~14

제목: 어디서 먹이겠느냐?

- 설교 한문장 요약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4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이를 통해 제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보고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보시며 빌립을 통해 제자들이 어떤 사실을 깨닫고 성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험하시며(πειράζω) 말씀하셨습니다.(6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하시게 될지 알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에 대해서 “요기만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7절) 옆에 있던 안드레는 이 이야기를 듣고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들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은 실현 가능한지 따져보고 불가능하다고, 안드레는 가진 것이 얼마 없어 불가능하다고 비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의 대답을 뒤로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디서”를 물으셨습니다. 떡을 얻는 방법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장소를 물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떡이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떡을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불손한 이유를 지적하시며, 참 떡에 대해 32~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실 것이고, 그 떡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참 떡에 대한 말씀은 유월절 어린양과 같은 자신의 대속적 죽음과 이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될 참 생명에 대해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의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름을 깨달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60, 66절)

2. 예수님께 가면

우리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떡”입니다. 이 떡을 위해 우리는 어찌합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발을 갈고, 가족을 키우고, 돈을 벌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어떻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방법을 이루고 떡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즉, 떡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며,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만 알면 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떡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셨습니다.(신 8:3)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 그 육신을 입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그 떡을 얻습니까? 유월절의 어린양이 장자들을 대신해 죽은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아등바등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에 집중하고, 그 방법이라 여겨지는 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안되고,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으시며, 자신이 그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떡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 할 수 있는 것 밖에 상상 할 수 없어서 “어떻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서”에 집중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6:25~33

제목: 담대하라

- 설교 한문장 요약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1. 그 때가 되면

본문은 “이것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이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모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때가 이르면 ……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때**입니다. 그러나 **앞선 7절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강림을** 얻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오심으로 모호하고 알아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모든 일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확인하시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르지도 않았음에도 지금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했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대답하십니다. 이 물음은, 이어진 33절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자신의 이익을 따라 흩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함에 대해 안타까움과 연민이 섞인 책망의 물음이었습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책망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곧 절망하고 낙담하며 예수님을 버릴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이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도,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νενίκηκα_완료형)**” 환난을 당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신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 세상을 반복적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명하십니다.**

2.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세상에서 의와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 세상과 벗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세상이라는 현실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14:27)** 그리고 평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 모든 모호했던,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들, 이 죄악된 세상을 예수께서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자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두가 나를 버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명령대로 우리는 담대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둘러싼 죄와 사망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이든, 그것이 환난이라도 담대하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여호와와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생명의말씀사, 김지찬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17: 에스더』, 대한기독교서회, 최종진

『엑스포지멘터리: 에스더』, 국제제자훈련원, 송병현

『NICNT: 요한복음』, 부흥과 개혁사, 램지 마이클스

『존더반 신약주석: 강해로푸는 요한복음』, 디모데, 에드워드 W. 클링크 3세

『요한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팀

“요한복음 강해(2) 태초에 빛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요한복음 강해(17) 시험하고자 하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말씀이 계시니라” 우면동 교회, 정준경 목사